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지도 밑에 조선인민군 제4차 포병대회 성대히 진행



2 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포무장장비들을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시킬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포무장장비들의 현대화를 다그치자면 현실적조건과 가능성을 잘 타산하여 단계별목표를 명확히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야 하며 과학연구사업과 창의 고안사업에서 이룩한 성과와 새로 개발된 기체들을 제때에 도입하기 위한 사업에도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모든 포병부대, 구분대들이 경상적인 전투 동원준비를 철저히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전쟁은 언제 한다고 땅고 내고 하지 않으며 그 어떤 불의의 사태에도 주동적으로 대처하자면 언제나 고도의 격동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각종 전투근무를 강화하고 적들이 우리의 자주권이 행사되는 령토와 명해, 명공을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즉시 멸적의 포화를 들이쳐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의 의도와 요구에 맞게 포병싸움준비를 하루빨리 완성하자면 포병지휘성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은 인민군대의 포병싸움준비를 전적으로 포병지휘성원들에게 맡겼다고 말씀하시였다.

인민군대안의 모든 포병지휘성원들은 최후결전에 나선 육탄용사와 같은 비상한 각오와 결심을 품고 포병싸움준비를 완성하기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 포병무력강화에서도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는 천리마속도의 영웅적신화를 창조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군에 포병중시기풍을 확고히 세울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포병부문 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각급 단위 정치기관들에서 포병싸움준비를 완성하기 위한 사업을 당위원회적인 사업, 부대적인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고 그에 대한 당적지도, 정책적지도를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포병일군대렬을 잘 꾸리고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조직정치 사업을 실속있게 벌려 그들이 언제 어디서나 죽어도 살아도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여 만단을 헤치며 싸워 이긴 항일혁명투사들처럼 혁명열, 투쟁열로 심장의 붉은 피를 뿜어내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군대

안의 모든 포병들이 당의 믿음과 기대를 언제나 잊지 않고 포병싸움준비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함으로써 시대와 혁명이 부여한 성스러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주체적포병무력강화발전의 불멸의 대강을 마련해주신 희세의 천출명장을 우러러 더치는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이 대회장을 진감하였다.

대회에서는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평도자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드리는 맹세문이 채택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폐회사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특별한 관심속에 진행된 이번 포병대회에서는 우리 당의 포병중시사상, 포병건설에 관한 전략적사상이 다시한번 뚜렷이 천명되었고 당의 포병무력강화방침관철을 위한 올바른 방법론들이 마련되게 되었다고 지적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제4차 포병대회는 당이 제시한 4대강군화전전략로선과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포병싸움준비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고 군력강화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는데서 새로운 이정표

를 마련한 력사적인 대회, 포병총진군대회로 주체혁명무력건설사에 빛나게 아로새겨질것이라고 강조하시였다.

뜻깊은 이번 대회를 통하여 전체 참가자들은 포병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 포병들에 대한 당과 조국과 인민의 믿음과 기대가 얼마나 큰가를 다시금 심장깊이 절감하게 되었을것이라고 하시였다.

모든 대회참가자들이 조선로동당이 밝힌 포병무력강화의 강령적지침을 틀어쥐고 신심드높이 돌격 또 돌격해나감으로써 우리 당 제7차대회를 포병무력강화의 자랑찬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에서 기수, 선봉대가 될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은 우리의 포병들을 제일로 아끼고 믿는다고 하시면서 혁명무력건설의 력사적인 로정에 그려했던것처럼 앞으로도 포병무력강화에 선차적인 힘을 넣을것이라고 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의 평도가 있고 우리 당에 무한히 충직한 영웅적포병들이 있기에 포병싸움준비에서는 반드시 혁명적전환이 일어날것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체 대회참가자들이 대회정신을 철저히 관철하여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지닌 성스러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리라는것을 굳게 믿는다고 하시면서

조선인민군 제4차 포병대회 폐회를 선언하시였다.

대회는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노래주악으로 끝났다.

또다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오르는 속에 대회장은 크나큰 격정과 환희로 세차게 끓어번졌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체 대회참가자들이 백두의 훈련열풍, 명포수운동의 불길드높이 포병싸움준비를 철저히 완성하며 군력강화의 최전성기를 앞장에서 열어나가기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그들에게 뜨거운 전투적 인사를 보내시였다.

대회참가자들은 현대전은 포병전이며 포병싸움준비이자 인민군대의 싸움준비이라는것을 명심하고 무적의 싸움군부대, 일당백의 포병들로 준비해나감으로써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을 철벽으로 지켜나갈 신념의 맹세를 다지며 백두의 선군명장을 우러러 목청껏 만세를 부르고 또 불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지도밑에 성대히 진행된 조선인민군 제4차 포병대회는 전군급일성-김정일주의의의 기치높이 인민군대 포병의 정치사상적, 군사기술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 전체 인민군장병들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를 내외에 힘있게 과시하였다.

본시정치보도반

